

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Candida Zeylanoides 복막염 1예

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윤세희 · 이고은 · 양동주 · 최낙원 · 윤성로

Candida zeylanoides Peritonitis in a Chronic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Patient

Yoon Se-Hee, Lee Go-Eun, Yang Dong-Ju, Choi Nak-Won and Yun Sung-Ro

College of Medicine, Konyang University

서론 : 진균성 복막염은 발병율이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심각한 합병증과 높은 기술적 실패율로 인해 복막투석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. 복막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진균성 복막염의 흔한 원인 진균은 *Candida albicans*를 비롯한 *Candida species* 이나 다른 균종에 대한 보고는 흔치 않다. *Candida zeylanoides*는 드물게 인체 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, 지금까지 총 3예의 진균혈증이 보고되었다. 저자들은 지속적 외래 복막투석환자에서 *Candida zeylanoides*에 의해 발생한 복막염을 1예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 : 62세 여자 환자는 2005년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 받고 본원에서 CAPD 시작하여 2005년 12월 (원인균:methicillin resistance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), 2006년 12월 (원인균:methicillin sensitive coagulase negative starphylococcus) 두 차례 복막염이 있었으며 투석액에 항생제 혼합하여 치료 후 호전된 과거력이 있었다. 환자는 입원 7일 전부터 복부 통증 있으며 복막액 혼탁하여 복막염 진단하에 입원하였다. cefazolin, amikin, clindamycin 혼합하여 치료하였으나 증상호전은 없었다. 내원 5일 후 균배양 검사상 yeast가 확인되어 입원 6일째 복막투석 도관을 제거하였다. Amphotericin B, vancomycin 정맥 주사로 치료 중 입원 10일 후 나온 진균검사상 *Candida zeylanoides* 균이 검출되었다. 그 후 Amphotericin B 대신 fluconazole 로 바꾸어 정주하여 2주 치료 후 퇴원하였다.

결론 : 지속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*C.zeylanoides*의 감염에 의한 복막투석 복막염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*C.zeylanoides*는 fluconazole 에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 환자에서도 fluconazole 치료 후 반응이 좋았다.

Key Words : 복막투석, 복막염, *Candida zeylanoides*

Candida zeylanoides, Peritonitis, Peritoneal dialysis